6/19, 7/3, 7/10, 7/31 출발 3,599,000원부터 하얀풍차투어

*스로*초동아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14



연기자 류수영은 아내 박하선을 위해 집안일과 외조에 힘쓴다고 말했다. 그는 "아내가 행복해야 제 삶의 질이 높아진다"며 애처가의 면모를 드러냈다. 사진제공 |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

? 류수영 ▲ 1070

▲1979년 9월5일생 ▲2008년 명지대 경영학과 졸업 ▲2000년 MBC 시트콤 '깁스가족'으로 데뷔 ▲ 2002년 SBS '명랑소녀 성공기'·연기대상 뉴스타상 ▲2004년 SBS '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'·연기대 상 조연상 ▲2006년 KBS 1TV '서울 1945'·연기대상 최우수연기상 ▲드라마 '열여덟 스물아홉' '마이 프 린세스' '오작교 형제들' '투윅스' '아버지가 이상해' '착한마녀전' 등 ▲영화 '썸머타임' '블루' '변호인' 등 ▲2017년 1월22일 연기자 박하선과 결혼 ▲2017년 8월23일 득녀

드라마 마치고 아내 박하선 외조 나선 류 수 영

매주 조리원 동기 모임 출석 요즘 육아에 푹 빠져 있죠

'흥' 잘 맞는 우리 부부…아내 행복이 내 행복 결혼 3년차, 아직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사이코패스 연기 후유증…난생 처음 악몽도

연기자 류수영(40)은 최근 아내인 박하선(32)으로부 터 육아 바통을 건네받았다. 주연작인 MBC '슬플 때 사 랑한다'가 막을 내린 데 이어 아내가 3년 만에 출연하는 드라마인 채널A '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' 촬영에 한창이 기 때문이다. 류수영은 집안일과 외조에 집중하고 있다. 세 살배기 딸과 대화가 통해 하루하루 보내는 재미가 더 욱 크다는 그를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.

농담을 던지며 입을 열었다.

"결혼 3년차에도 아내를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눈이 돌아간다. 하하! 부부라는 게 서로 잘 알 것 같으면서 도 몰라 재미있다. 드라마 1회만 봤는데 그 결말이 드러나 면 시시한 것처럼. 우리는 '흥'이 서로 잘 맞는다. 직업이 같아 연기 등 관련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한마디만해도쉽게 알아들어따로설명할필요가없다.

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류수영은 속 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.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를 섞어가 며 예능프로그램 속 모습처럼 유쾌함을 물씬 뿜어낸다. 집 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일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상상할 즈 음 "아내에게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"고 웃으며 "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는 게 이런 건가"라며 미소 띤

"약간 푼수 같은 면이 있다. 하하! TV 소리로 아이를 깨 우면 엄청 혼난다. 제가 만든 음식을 아내가 먹지 않았는 데도 맛이 어떤지 대답을 계속 요구한다. 애정결핍인가? (웃음)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.

그는 "나의 인생과는 안녕"이라고 할 만큼 남편과 아빠 로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이 크다고 말한다. 복잡한 일상 에서 잠시 벗어나 자전거를 타며 시원한 바람을 맞는 즐거 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어 아쉽기는 하다. 대신 육아 공부 에 공을 들이고 있다.

류수영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투까지 딸이 따라

하는 모습에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. 육아 관련 서적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는 "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의 산 후조리원 동기 모임에 참석해 다른 이뻐들로부터 여러 조 언을 구한다"고 했다.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.

그런 류수영이 최근 태생 처음으로 "베개가 젖을 정도 로 땀을 흘리며 악몽"을 꿨다. 지난달 27일 종영한 '슬플 때 사랑한다'에서 걸핏하면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이 코패스 역을 연기한 '후유증'이다. 류수영이 데뷔하고 처 음으로 맡은 극단적인 캐릭터이기도 하다.

"연습하면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무섭더라. '멘탈 붕 괴' 수준이었다. 하하! 잘못 접근하면 캐릭터를 미화할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철저하게 대본대로 했다. 그래도 이 해 없이 하려니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느낌? 꾸준히 누 군가를 미워하고,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설정은 연기라 류수영은 "아내가 행복해야 제 삶의 질이 높아진다"고 도 쉽지 않더라. 괴로웠지만 송정림 작가가 나의 이면을 발견하고 캐릭터를 제안해줘 재미있는 작업 과정이었다. 연기자로서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."

> 류수영은 20년 가까이 연기하면서 연기관에 대해서도 일정한 틀을 갖고 있지 않다.

> 그는 "연기관이란게 좀처럼 생기지 않더라"며 "컴퓨터 처럼 포맷과 재부팅의 과정을 반복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다"고 했다. 연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 신의 연기 스타일을 고수하기보다 촬영장 환경과 스태프 와 어울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> 이달 2일 개막해 11일 막을 내린 제20회 전주국제영화 제에 참여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었다. 전혜림 감독이 연출 하고 차인표와 함께 출연한 단편영화 '샤또 몬테'를 영화 제에서 공개한 그는 "배부른 고민을 하지 말아야지"라고

> 그는 "모두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작 품이 많아 안타까웠다"며 "작은 영화의 힘이 커지면 커질 수록 배우와 감독의 층이 두터워지지 않을까"라고 바랐 다. 이어 "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"면서 이를 위해 "앞으로도 단편영화 등에 적극적 으로참여할계획"이라고밝혔다.

> "등 '따시고' 배부르면 금방 식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 열정이다. 식더라도 가능하면 천천히 식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. 그리고 또 하나! 멋있게 늙고싶다." 백솔미 기자 bsm@donga.com

